# 전북도-지역전문대학, 인재양성 '맞손'

## 도 · 도교육청 · 전북지역대학총장협, 협약 체결… 소통 · 협치로 전북교육 대전환 '시동'

전북도는 26일 전북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도지사-도교육감 당선인 간 합의와 지난 25일 도-도 교육청-지역대학(4년제)과의 전북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에 도-교육청-지역대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협력 추진체계구축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 전문대학 총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와 경력단절자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한 대학별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지학대학이 원팀을 넘어선 드림팀이 된다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

## 도, CU편의점, SNS 이벤트 추진…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가능

## 최근 업무협약 계기, SNS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 의기투합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 복분자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전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전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최근 CU(씨유)가 출시한 신제품 5종(복분자 도시락, 복분자 김밥, 복분자 삼각김밥, 복분자 햄버거, 복부자 샌드위치)에 사용된 복분자의 생산지를 맞추면 된다.

아울러 가장 먹고 싶은 복분자 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26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은 "최근 전북도와 ㈜BGF리테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SNS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로 의기투합 했다"며,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CU편의점의 김밥과 햄버거 등을 맛있게 드시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온라인 플랫폼(전북생생장터,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 연계 유통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사업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 탄소 분야 전문창업 · 진흥원 입주공간 연계 · 탄소 · 3D설계 ·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서 좋은 평가

전북도가 창업진흥원이 진행한 20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문 랩 평가등급 'S'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중요 지표인 기업 투자·판로 성장, 제조창업 및 양산 지원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메이커스페이스인 '뚝딱365'는 전문랩 11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S' 등급을 획득했다.

'뚝딱 365'는 탄소 분야 전문창업과 진흥원 입주공간 연계, 탄소·3D설계·전기전자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실적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 전문랩은 2020년에 선정된 탄소 전문 메이커스페이스로 전북 지역의 전문 메이커 육성과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됐다.

'뚝딱365'는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의 발전과 제조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과 단계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시제품을 제작할 때 탄소 및 3D 설계 등 5명의 전문가가 제작을 돕고 있으며,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 비용도 저렴하다.

2021년 '뚝딱365'에서 탄소 제품 제작 교육 참여 후 창업한 문모 대표는 "뚝딱365에서 탄소 섬유를 활용한 공법 교육과 카본 스케이트 제품 제작을 통해 탄소 발열 패드 시제품을 제작했고, 지금도 뚝딱365 전문가 컨설팅으로 제품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의 공간을 활용해 전라북도 탄소 산업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반이 마련돼 제조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실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실개천 · 바닥분수 · 물놀이장 등 집중 점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이번 검사는 한옥마을 실개천과 같이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개천,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연구원은 적정 소독, 용수교체 주기 등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경시설 운영 중에는 수질기준 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체 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어촌체험휴양마을 · 해수욕장 안전점검

## 고창지역어촌 등 찾아 코로나19방역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실태 확인

전북도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6일 고창지역 어촌체험휴향 마을 및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및 안전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급격한 확산으로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및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고창 심원면에 위치한 하전 어촌체험휴양마을과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위생·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나해수 국장은 현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치원 및 초등학생, 가족단위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음식물 위생관리 등 방문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6일 고창지역 어촌체험휴향 마을 및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및 안전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해수 국장은 동호 및 구시포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 여부 및 각종 입수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요원 등을 격려했다.

전북도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와 적정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및 장비의 소독·환기를 철저히 하고 소독제를 비치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관광객들도 자율적으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도-전주지검, 합동단속 대비 회의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합동 단속을 대비해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특사경,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공무원 및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 업무 수행 중 위법사항 발견(인지)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으며, 수사관과의 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합동 단속은 8월 12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업소·일반음식점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영업 및 시설내 위생상태, △무신고 제품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고의, 고질적 무신고 숙박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벌에 관해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2022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매일 부사장
•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양성 및 기관, 단체 특강 연사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카페 디스트 • 웅변코칭사 • 심리상담사
• 저서 "365 스피치 지혜라니 케이션", "나를 세운 별, 별, 별", "스피치 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 | |
|---|---|
|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 우석대학교(주, 야간) |
| 원광대학교(주, 야간) | 군산대학교(주, 야간) |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 남원스피치(야간) |
| 김제스피치(야간) |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5만원 • 문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놀이협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